

“나의 시 주제는 사람과 언어·구원”

장흥 출신 위선환 시인 시집 발간 ‘순례의 해’ ‘대지의 노래’ 등 묶어 용어문학상...60년 광주시단 그리워

장흥 출신 위선환 시인은 1960년 용어 박용철 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용어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그의 문학적 출발은 그렇게 화려했다. 당시 박두진이 그의 시를 선정했다는 것은 시적 역량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위선환 시인. (위선환 제공)

그러나 이후로 그는 한동안 오랫동안 시를 끊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1969년 말에 시를 끊었다가 30년이 지난 1999년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시적 자질을 아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최근 세 편의 시집을 묶은 ‘위선환 시집’ (상상인)을 펴내고 오랜만에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다. 올 봄에 ‘비둘기’이라는 시에세이집을 펴낸 바 있지만 시인은 시로 자신의 문학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집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서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는 당시에 나에게 애는 아담하고 급개만 읽하던 우리시에 대하여 이물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시’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전위시(아방가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쓴 시가 매우 난해해서 읽히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관계로 시인과는 전화와 메일을 통해 작품집 출간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전화 저편에서 전달되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단이 느껴졌다.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형의 성품이 아닐까 싶었다.

장흥은 문향(文鄕)이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 문

학사에서 뛰어난 문인들을 배출했다. 고(故) 이청준·송기숙 소설가를 비롯해 한승원, 이승우 소설가, 이대훈 시인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후기의 존재 위백구 선생도 뛰어난 시인이었다.

위선환 시인의 시 또한 그렇게 장흥의 문학, 남도의 문학을 계승한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다른 시’를 쓰기 위해 시도했다. 그는 “언어와 시가 발전하는 궤적이 언어와 시가 더불어 시도하며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낸 시집이 지난번에 낸 시집보다 발전적으로 달라진 시”가 되길 바란다

이번 시집은 모두 세 권의 시집을 한 책으로 묶어 간행했다.

‘순례의 해’, ‘대지의 노래’, ‘시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시집을 낱권으로, 간격을 두고, 따로 따로 간행할 시간이 없다”는 말에서 오랜 창작의 여정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읽혀진

다. “나는 서정시가 지향하는 궁극이 세계의 본래 본연 실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주제를 사람이라고 보는 내 관점에서는 세계의 본래 본연 실상이란 것이 사람의 있음이며 죽음이며 신이며 대지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그것들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시의 발전을 도모했다. “1960년대 쓴 ‘다른 시’와 오늘에 쓰는 ‘다른 시’가 하나로 만나고 적합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말에서 시에 대한 열정이 읽힌다. 오랜 세월의 간극 속에서 시인은 끊임없는 ‘갱신’과 ‘합일’을 시도하지 않았나 싶다.

“지극한 저 사이거나/ 뻔한 그 사이거나/ 지나치는/ 잠깐 사이거나/ 무심히/ 돌아본 어느 사이거나/ 틈새가 닿는// 사이가// 다시 걷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지켜보며/ 눈자위가 식는/ 사람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끼어 있다”

위 시 ‘사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미지를 상징한다. 조각상 평론가는 “시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사이’일 것이라는 사실을 시집을 읽는 독자는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집 안에서 분절되는 풍경 혹은 세계는 단속되지 않고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시인은 그 ‘사이’ 속에서 삶에 대해, 문학에 대한 성찰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사이’라는 시간 속에서 창작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도’에 대한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1960년 광주를 이야기했다.

“1960년대의 광주의 시는 그림습니다. 박봉우, 박성룡, 정현웅, 윤삼하, 주영명, 이성부, 문순태 등 시 쓰는 이들의 풋풋한 서정이 있었고 언어 또한 신선했거든요”

한편 위선환 시인은 지금까지 ‘나무들이 강을 건너갔다’, ‘눈 덮인 하늘에서 넘어지다’, ‘담장강’, ‘수평을 가리키다’ 등의 시집을 펴냈다. 현대시작품상, 현대시학작품상, 이상화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성용 “눈물 날 만큼 힐링이었어요”

‘배우는 캠핑짱’서 신승환·홍중현과 캠핑장 사장 변신

배우 박성용, 신승환, 홍중현이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진정한 사람 이야기를 나눈다.

배우 박성용은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ENA·채널A 예능 ‘배우는 캠핑짱’ 제작발표회에서 “신승환 씨가 마지막 날 개별 인터뷰에서 울었는데 사실 나도 인터뷰 중에 울었다”며 “(프로그램이) 그만큼 힐링이었다”고 밝혔다.

‘배우는 캠핑짱’에서 배우 3명은 캠핑장 사장으로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캠핑장 운영 수익을 모아 전액 기부한다. 배우들은 ‘고기 구워드릴게요’, ‘뒤통리해드릴게요’, ‘고민 들어드릴게요’ 등 약 10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들과 교류하고 대가로 소소한 금액을 받는다.

박성용은 “손님들에게 제 본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고 캠핑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정말 큰 힐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느낀 감동과 행복을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정은하 PD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며 “각양각색의 텐트가 모여있는 캠핑장이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 촬영 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는 캠핑짱”이라는 이름은 배우들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손님과 사장님이 서로의 인생을 배운다는 이중적인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PD는 배우들의 반전 매력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주로 악역을 맡아온 박성용은 귀여운 만형으로, 신승환은 남다른 친화력을 자랑하는 ‘소통왕’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막내 홍중현은 형들을 사로잡을 카리스마를 뽐내라고 한다.

신승환은 “저랑 (박성용) 형이 험악한 첫인상으로 손님들을 쫓아낼까 봐 처음에는 무조건 홍중현이 손님을 맞았다”고 웃으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 일곱 군데의 다른 캠핑장을 찾아갔는데 하루 이를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치 동화 속 마법의 마을 같았다”며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런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총무를 맡은 홍중현은 “전역하고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했는데 ‘진짜 홍중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들과 삼십분이든 한 시간이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기 구워드릴게요’ 서비스가 제일 재밌었다”며 웃었다. 25일 밤10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ENA·채널A 예능 ‘배우는 캠핑짱’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박성용·신승환·홍중현(왼쪽부터)

ACC 곳곳 걸으며 자신의 내면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7~30일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공연

장소성에 서사를 덧입혀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일명 ‘장소 특색적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오후 8시·밤 9시) ACC 일대에서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존 극장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관객이 ACC 곳곳을 걸으며



며 옛 전남도청 공간에 담긴 의미를 기리고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탐색 장소는 모두 3가지. ‘자연의 어둠으로 돌아가는 길’, ‘옛 전남도청에 쌓인 역사적 시간을 되짚어 보는 길’,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길’이 그것. 관객들은 웹에 제작된 지도를 따라 혼자서 산책

로와 광장을 탐색하고 지하의 예술극장으로 모인다. 이들은 시간이 중첩된 길을 걸으며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등을 고민하며 전당의 장소성에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투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은 지난 2020년 ACC 레지던시 창작품 시연으로 관객과 처음 만났으며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성을 넘어 관객의 사적인 체험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료 공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동훈 감독 ‘외계+인’ 개봉 첫 주말 1위

관객 63만여 명 동원

지난 20일 개봉한 ‘외계+인’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최동훈 감독 신작 ‘외계+인’은 지난 주말 사흘(22~24일) 동안 관객 63만여 명(매출액 점유율 32.3%)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같은 날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2’는 관객 59만9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28.5%)을 모으며 뒤를 이었다.

전날까지 두 영화의 누적 관객수는 각각 91만1

천여 명, 83만2000여 명이다.

개봉 한 달을 남긴 ‘탐간: 매버릭’은 3위로 밀려났지만 주말 동안 44만7000명(매출액 점유율 23.0%)의 관객을 동원하며 장기흥행을 지속하고 있다. 누적 관객수는 650만 명을 넘겼다.

개봉 첫 주말을 맞은 일본 영화 ‘썬더 필름을 타고!’는 관객 5400여 명(매출액 점유율 0.3%)을 모아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 전체 박스오피스 9위에 올랐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 ‘명량’ (2014)의 후속작인 ‘한산: 용의 출현’은 27일 개봉을 앞두고 사전 시사회만으로 관객 3000명(매출액 점유율 0.2%)을 모아 10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